다양한 양육자 간의 협력

5편

우리 아이를 위해 여러 양육자들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교육부 대구광역시교육청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다양한 양육자와 함께할 때,
양육의 현실은 어떤 모습일까요?

한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많은 어른들의 손길이 필요해요.

부모뿐만 아니라 조부모, 선생님까지...

현대사회에서 아이는 '한 사람의 말'이 아닌,

'여러 어른의 다양한 방식' 속에서 자랍니다.

그만큼 기준이 흔들릴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누구는 된다고 하고, 누구는 안 된다고 하는 상황

아이에게는 매번 새로운 규칙이 등장하는 셈입니다.

어른들의 말이 다를 때, 아이는 이렇게 느낍니다.



아이는 양육자마다 방식이 다를 수록,
기준보다 상황을 먼저 배우게 됩니다.
결국 무엇이 옳은지 고민하기보다,
지금 누구 앞인지 살피며 눈치로 반응하게 됩니다.

우리 집 양육은 어떤 모습인가요?



나 혼자 책임지는 양육



여럿이 함께 하지만,
책임은 흐려진 양육

누군가는 모든 부담을 혼자 짊어지고 있고,
다른 누군가는 한발 물러서 있진 않으신가요?
아이는 양육자의 수보다,
양육자 간의 연결을 더 민감하게 느낍니다.

양육자마다 입장이 다르고,

상황은 매번 **달라집니다.**

아이를 키우며 마주하는 선택들에는

쉽게 답할 수 없는 순간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정답 없는 밸런스 게임...

계속해야 할까요?

양육 협력이란,



역할만 나누는 일이 아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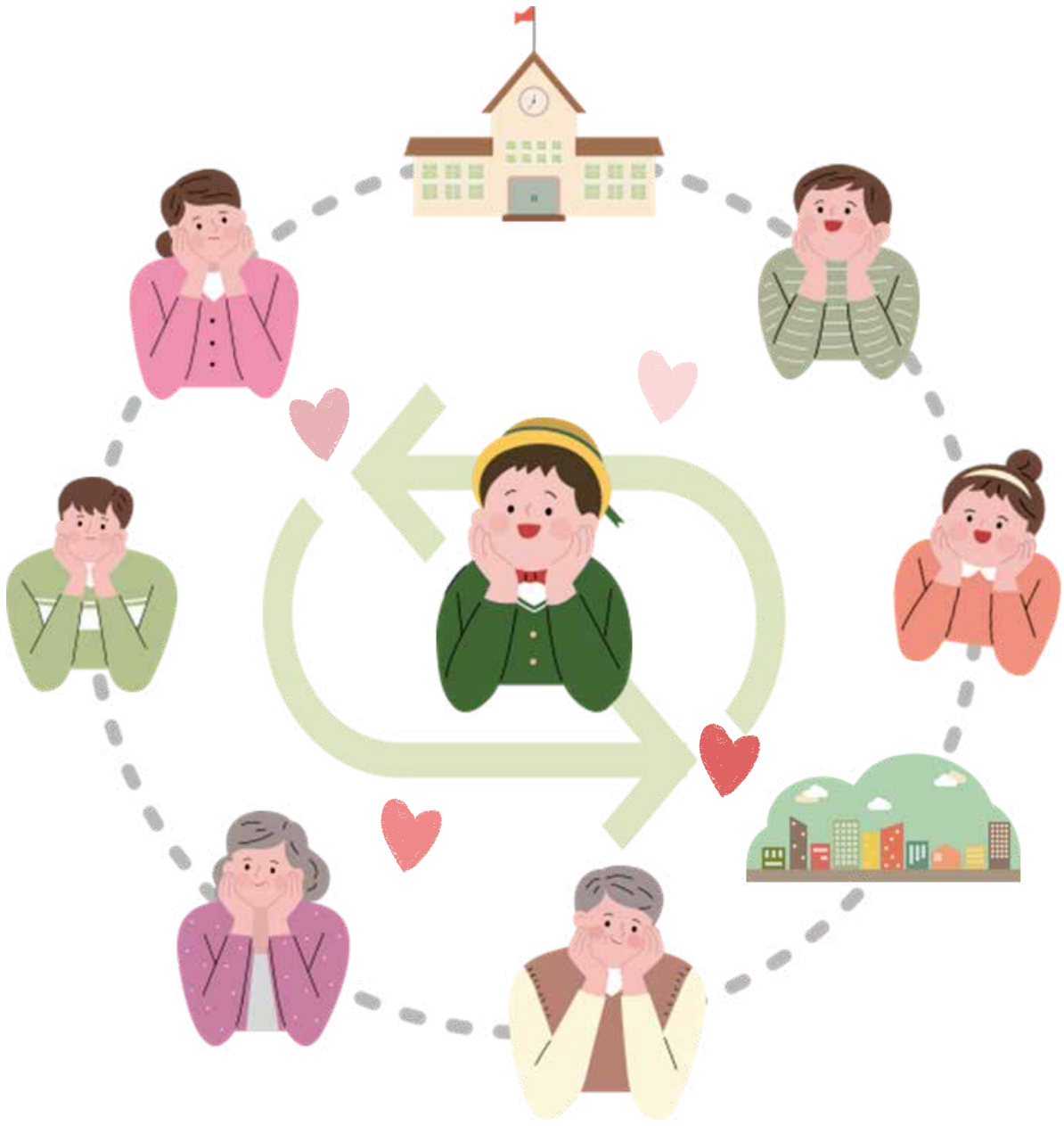
관계를 조율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아이는

일관된 흐름에서 오는 **안정감**을 느끼고,

자신이 존중받는 존재라는 확신 속에

자존감을 키워 나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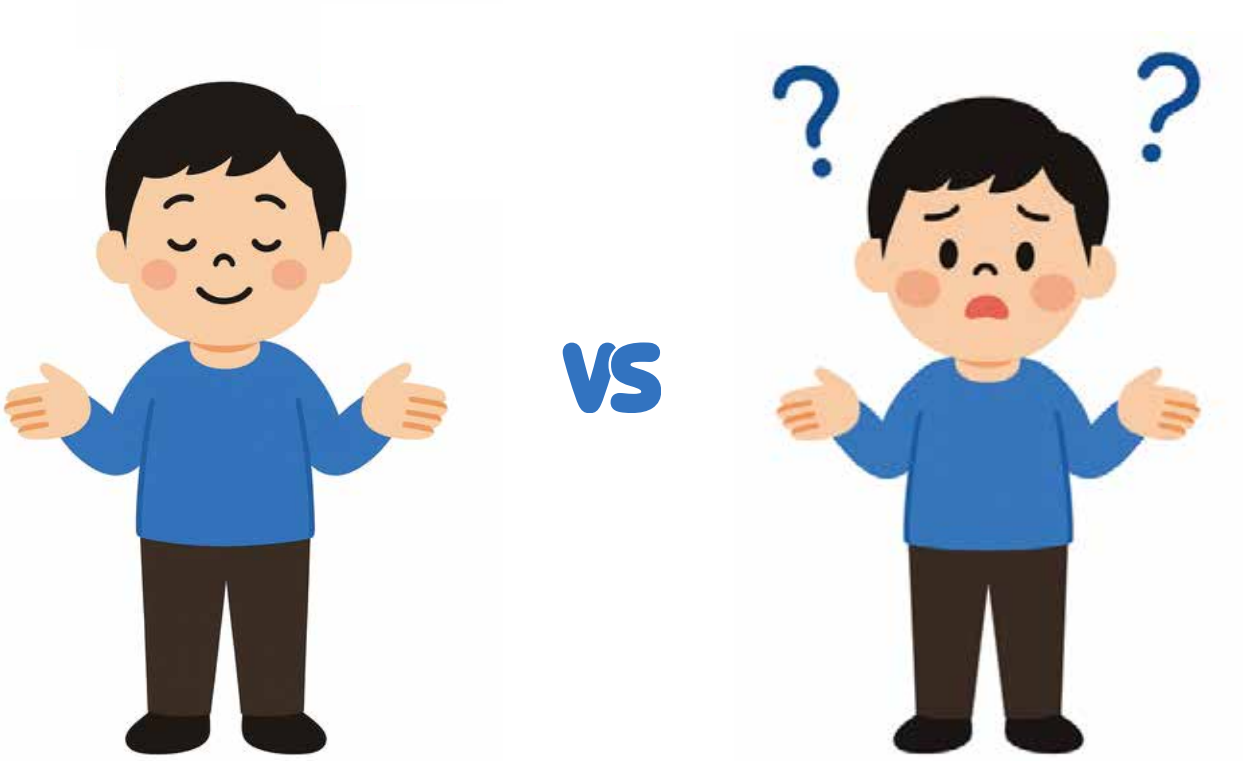
아이는 여러 환경 속에서 성장합니다.

가정, 기관, 주변 어른들까지...

중요한 것은 그 환경들이 따로 움직이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여러 어른과의 관계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기도, 혼란을 겪기도 해요.



그리고 그 차이는 어른들 사이가
얼마나 연결되어 있느냐에서 시작돼요.



✓ 양육자의 역할은 '고정'된 것이 아니에요.

가족을 비롯한 양육자들은 상황에 따라
서로 조율하며 **함께 움직이는 관계**예요.

✓ 양육자의 역할이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같은 방향을 보려는 노력만으로도,
아이는 충분히 안정감을 느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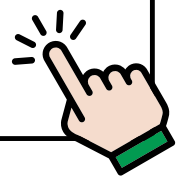
오늘부터 확인해 보세요!

우리 집에서는 **양육자 간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 ☐ 아이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양육자 간 **공유**하고 있다.
- ☐ 일상에서의 약속을 정할 때 함께 **의논**한 적이 있다.
- ☐ 서로 다른 양육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 본 적이 있다.
- ☐ 생각이 달라도, 아이 앞에서는 **한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한다.
- ☐ 같은 상황에서 양육자 간 방식의 차이를 **조율**해 본 적이 있다.

우리 아이의 자존감은
서로 잘 이어진 어른들 사이에서 자라요.
그 연결을 만드는 것이
바로 **양육자의 협력**입니다.

이제 우리 가정에서도
협력을 시작해볼까요?




교육부

대구광역시교육청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